

내가 제일 행복해!

(정신 지체 1)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보란다. 그러나 바보가 아닌 사람들은 바보가 없으면 너무 너무 심심해서 세상 살 맛이 안 날 것이란다. 그러니 세상에는 바보가 있어야 한다. 그것도 많이.

다행스럽게도 세상에는 바보가 많다.

세상을 보라. 가깝게는 여의도(汝矣島)를 보라. 여러 종류의 바보들이 다투어 목청을 드높인다. 물론 그 중에는 천재(天才)들도 섞여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안다. 그 중에 목소리가 더 높은 자가 진짜 바보라는 사실을.

독일의 시인 괴테가 한 마디 했다.

“활동적인 무지(無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속칭 ‘바보’라고 불리는 정신 지체(精神遲滯) 또는 정신박약(精神薄弱)이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능 발달이 평균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고 거기에 적응적(適應的) 행동에 결함이 있으며, 18세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定義)한다.

정신 지체는 지능지수(IQ), 성장 특성, 교육의 가능성, 사회 및 직업의 적응도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는데, 검사 상 지능지수가 낮게 나와도 사회 적응을 잘 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높은 지능지수를 가지고도 사회생활에 거의 적응을 하지 못 하여 평생 수용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점으로 보아 원래 타고나는 지능 지수보다는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의 적응도가 훨씬 신빙성이 있는 지능의 지표(指標)가 된다고도 할 수 있다.

정신 지체는 보통 심한 것으로부터 백치(白痴), 치우(癡愚), 노둔(魯鈍)으로 분류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분류에 따르면 정신 지체는 극심증, 심증, 중등증, 경증, 경계선증 등으로 분류한다. 전체 인구 대비로는 약 1%정도가 정신 지체에 해당되며 대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은 12세를 전후하여 그 진단이 내려지게 된다.

극심한 정신 지체는 IQ 20이하로 전체 정신 지체의 1%를 차지한다. 백치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전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 대개 시각 장애, 청각 장애 그 외 지체의 이상 등을 보이므로 사회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꼭 필요하다.

심한 정신 지체는 IQ 20-35로 전체의 3%정도이다. 이들 역시 운동 기능, 지적 기능, 언어상의 장애를 나타내므로 독립적인 생활을 해 나가기 어렵다.

전체 정신 지체의 6% 정도가 되는 중등도의 정신 지체는 IQ가 36-51로 적당한 훈련과 환경 하에서는 자신의 신변 처리가 가능하며 단순 작업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적 능력은 5-6세 수준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IQ 52-67로 전체 정신 지체의 90%를 차지하는 경증은 노둔(魯鈍)이라 하여 보통의 일 처리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추상적(抽象的)인 사고의 능력이 부족하다. 열심히 교육을 받으면 낮은 수준의 직업적 기술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지적 기능이 고작해야 10-12세 정도이므로 심한 생존 경쟁에서는 이겨내지 못 한다.

경계선 정신 지체로 분류되는 IQ 68-83 정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정신 지체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이들은 정상 수준의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며 비록 초등, 중등학교에서의 학력은 부진하지만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는 크게 제약받지 않는다.

톰 행크스의 '포레스트 검프(Forrest Gump)'란 영화가 있다. 정신지체아의 일생을 담담하게, 그리고 매우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시각으로 그려내고 있는 감동적인 영화이다.

IQ 75의 저능아인 '포레스트'는 언제나 남의 놀림을 받고 당하기만 하는 아이이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바보란 남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다만 지능이 좀 낮을 뿐이다"라며 격려한다. 그는 낮은 지능 때문에 언제나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주는 아이들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달리를 한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달리기 능력이 미식축구 감독의 눈에 띄어 특기장학생으로 당당히 대학생이 된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월남전에 참전한다. 군대를 제대한 그는 단지 전사한 동료와의 약속을 이유로 막연히 새우 잡이에 나선다. 그러나 우직하게 앞만 보고 달리는 그를 하늘이 도와 부자로 만든다. 후일 그는 어떤 '과일 회사'(애플 컴퓨터)에 투자하여 거부(巨富)가 된다.

이 영화는 놀림 받는 정신지체자의 애환(哀歡)을 저능아의 시선에서 아주 담담히 그렸으며, 몽클한 감동을 준다. '포레스트 검프'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거의 대부분의 정신지체아에게는 늘 지팡이처럼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포레스트 검프에게 어머니와 또 한 사람 나중에 그의 아내가 되는 제니가 있었듯이. 그러나 대부분의 정신지체아는 '포레스트 검프'처럼 행복한 사랑을 하지도 부자가 되지도 못 한다.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이 사회가 어느 정도의 후견인(後見人)이 될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한다.